

## 문화복합시설로서의 풍납토성 매장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servation of the Buried Heritage of Pungnapdoseong as a Cultural Complex

○강 동 혁\*      김 소 영\*\*  
Kang, Dong-Hyuk      Kim, So-Young

#### Abstract

Should history with hidden urban heritage and artifacts be forgotten? As cities grow and develop, these hidden ruins are inevitably revealed to us. Is it right to erase all traces of our history in order to make room for new developments? Is it appropriate to cover up an excavation once a buried heritage is revealed? My research and paper on the urban ruins of the Forgotten Kingdom will explore how architecture and these historical buried ruins can coexist and how we can preserve the memory of the old and the new with a new cultural complex in Pungnapdong. As we have seen in China's Northeast Project, we need to rethink our perception of preserving history and culture.

키워드 : 보존, 역사, 도시유물, 도시유적, 매장문화재, 문화복합시설

Keywords : Preservation, History, Urban Artifacts, Urban Ruins, Buried Artifacts and Ruins, Cultural Complex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25년에 발생한 대홍수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에 한강 변에 흙으로 축조된 평지성이다. 초기에는 몽촌토성의 위상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0년 경당지구 조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굴작업으로 한성백제시대의 첫 도읍이자 왕성이었던 하남위례성이 몽촌토성이 아니라 풍납토성이라는 학설에 무게가 실리면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7년 진행된 발굴조사과정에서 유실된 줄 알았던 서성벽의 잔해가 발견됨에 따라, 풍납토성은 역사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학술적 발견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활발한 발굴조사작업에도 불구하고, 풍납토성의 보존 상태는 처참하다. 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성벽 일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조사 중인 발굴지를 제외한 기존의 풍납토성은 그저 동네의 둔덕으로 남아있다. 주민들조차 인근에

조성된 산책로의 영향으로 토성 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썰매를 타는 등 그 가치에 비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말하면,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화재의 역사 자체를 평가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문화재 형성을 가능케 한 주변의 자연환경, 그리고 도시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재와 도시의 공존을 역사문화복합시설 조성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 2. 매장문화재 보존 방법 및 대상지 분석

##### 2-1.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및 현황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우거나 외부로 노출 시켜 보존하는 ‘현지 보존’, 박물관, 전시관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이전 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보존하는 ‘기록 보존’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조사 후 다시 복토하여 보존하는 ‘현지보존’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1년 발굴된 동성벽의 경우 토성의 구조물 및 관련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으나, 지역 보존을 위해 발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묻혔고, 현재는 평범한 언덕으로 남아있다. 묻힌 문화재를 다시 흙으로 덮는 행위는 일종의 역사적 파괴행위로 볼 수 있어, 문화재를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 문화재 보존계획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한양대 졸업자

\*\* 한양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Design, Hanyang University, kkrode0818@gmail.com)

이 연구는 2022년도 저자의 졸업설계 결과의 일부임.

## 2-2. 대상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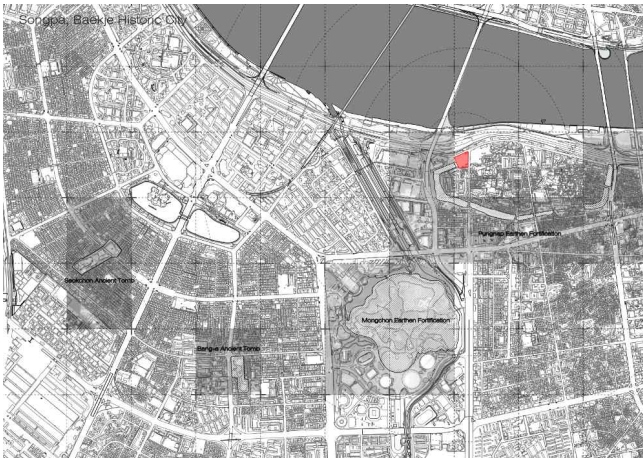


그림 1. 송파구의 백제문화유산 분포도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행정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교육, 의료 문화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하지만 송파구가 백제 문화재로 가득한 ‘백제문화권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송파구에는 풍납토성을 비롯해 몽촌토성, 방이동과 석촌동의 고분 등 백제의 유구한 문화재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풍납토성이 특히 구별되는 이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문화재들과 달리 문화재 위에 도시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풍납토성은 과거와 현재가 혼합된 지금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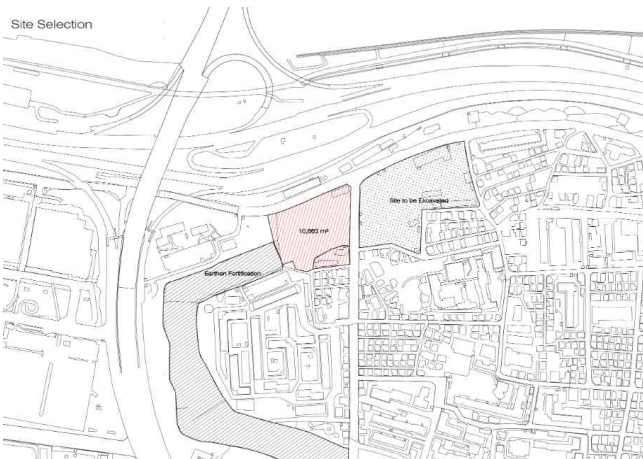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지 선정

대상지는 현재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작업이 진행중인 풍납동 310 일대이다. ‘그림 2’를 참고하면, 대상지는 풍납토성의 성벽이 끊긴 곳과 추후에 발굴작업이 예정되어있는 삼표 풍납시멘트공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발굴지를 보존함과 동시에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끊어진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기존의 풍납토성 성벽과 앞으로 발굴될 성벽 및 문화재들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해당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 3. 발굴 현황 및 주요 유적

### 3.1 발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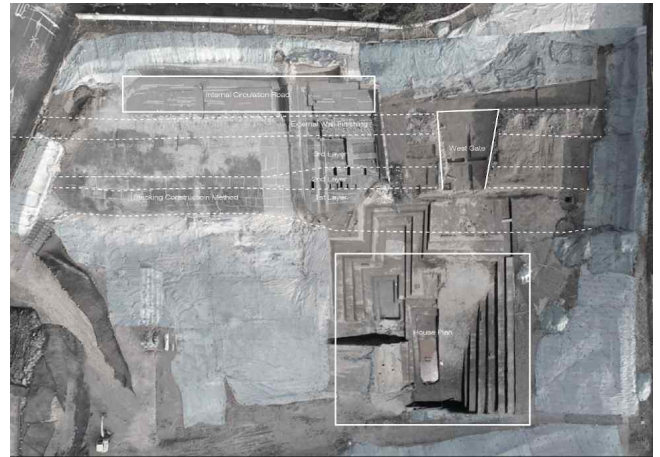


그림 3. 발굴 현황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을 나타낸 ‘그림 3’을 보면, 서성벽의 주 출입구였던 서문지, 고대 성벽 축조 방식인 판축공법의 평면과 단면, 그리고 성벽 내부 순환도로의 기능을 했던 내환도 등 다수의 유구 및 유적이 출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발굴성과이며 상술했듯이 발굴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 추가 발굴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4. 디자인 과정

### 4.1 디자인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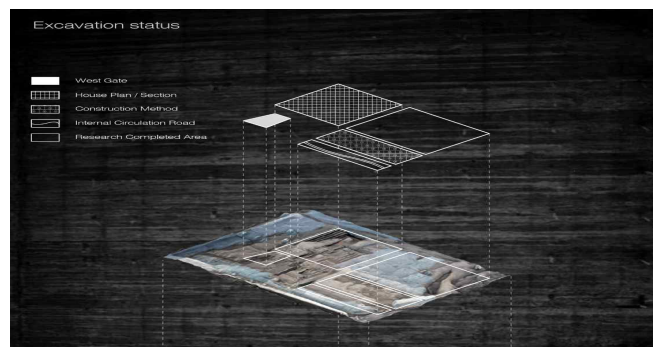


그림 4. 주요 유적의 위치

‘그림 4’는 ‘그림 3’의 발굴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유적들의 위치를 3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표시된 부분들은 발굴된 문화재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표시된 위치는 보이드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서문지 유적은 주 출입구 역할을 했던 유적지의 특성상 판축공법의 평, 단면이 잘 드러나는 성벽 유적과 인접하여 있어 이 공간에 가장 큰 보이드 공간이 필요하다. 이 보이드 공간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 4-2 디자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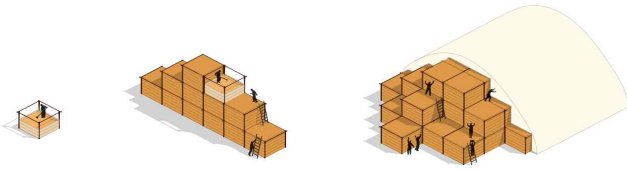


그림 5. 판축공법

‘판축공법’은 판으로 만든 틀에 흙을 단단하게 굳혀 벽돌처럼 쌓아 올리는 토목공법이다. 건축물의 디자인은 풍납토성 고유의 축조 방식인 이 판축공법에서 차용하여, 층층이 겹쳐 올리는 방향으로 디자인 방향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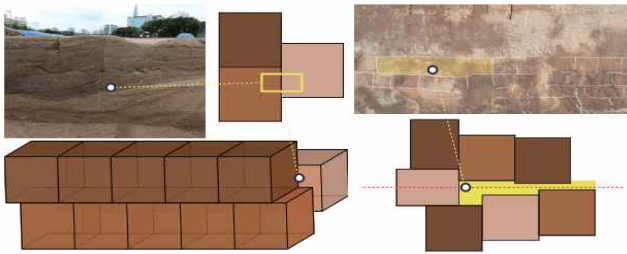


그림 6. 판축공법 방형 판과 수직 및 수평확장 모식도

판축공법이 풍납토성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보면 단순히 규칙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맞물린 형태인品茶형으로 축조하여 응집력을 강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에 이가 잘 나타나 있는데, 실제 성벽의 단면 조사에서도 이 공법이 적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계단의 참과 같이 정지 층 또한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 수직·경사 판축목주와 협판 및 판축 모식도

이와 더불어, ‘그림 7’과 같이 단면 조사 현장에서 판축공법이 수직으로만 축조된 것이 아니라, 경계면을 삭토하여 경사면을 조성한 흔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직으로 쌓아 올려지는 형태와 더불어 일부 부분에 경사면을 결합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 4-3 디자인 적용



그림 8. 최종 디자인

최종적으로 도출한 디자인은 ‘그림 8’와 같다. 상술했듯이, 계단식으로 점차 적층시키는 형태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구조는 외부 디자인과 동시에 외부 휴식공간의 역할을 결합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계단 사이에 유리를 삽입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자연스럽게 내부 공간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풍납토성의 정지 층 또한 계단 참의 형태로 적용하여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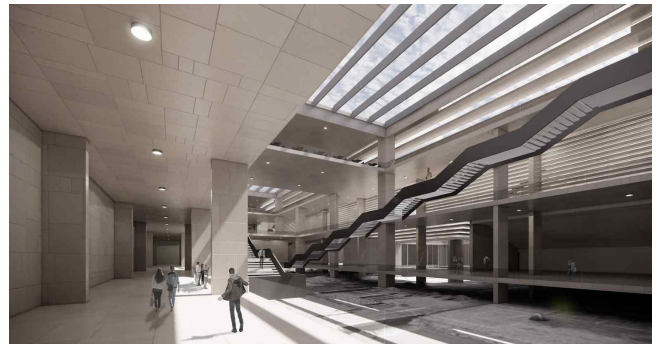


그림 9. 전시통로 및 주 동선

동선의 경우에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보이드 공간을 설정한 후, 주 동선을 이 보이드를 끼고 돌게 하여 어느 층수에서든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보이드 중심 대공간은 이용자들이 문화재를 보다 특별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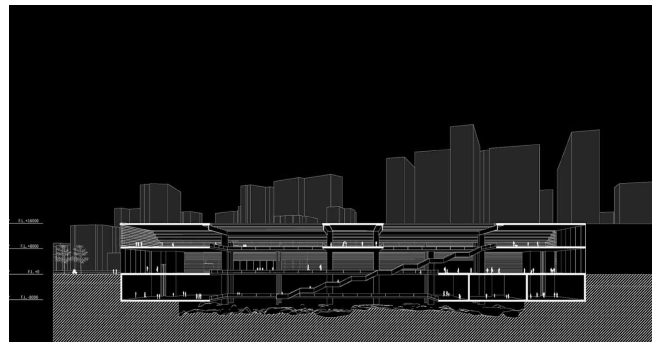


그림 10. 최종 디자인 단면



그림 11. 문화재 중정 공간

그리고 출토된 유적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발굴지의 상부에는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바닥과 중정 공간을 통해 이용자들이 그 위를 걸으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 풍납토성 토층 전사

또한, 기존의 풍납토성과 이어지는 부분에는 벽면에 강화유리를 설치하여 풍납토성의 토층 단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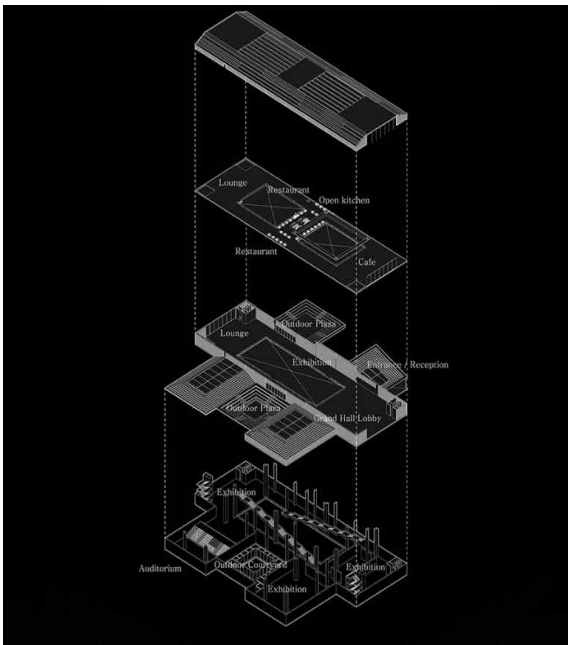


그림 13. 프로그램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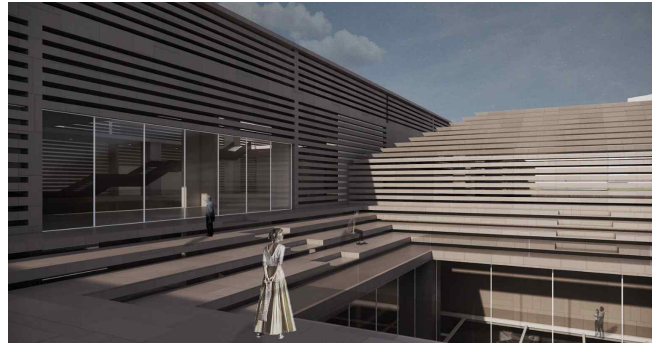


그림 13. 외부 중정 및 휴식공간

문화재 관람 외에 강의, 세미나 등을 위한 대강당, 내부 전시 공간, 레스토랑, 내·외부 휴식공간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용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5. 결론

현재 대한민국의 매장문화재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지역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는 엄연한 역사적 흔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적 형태로 발굴된 유적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도시와 매장문화재의 궁극적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간을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동선을 설정하였다. 주요 디자인은 풍납토성의 건축방식인 '관축공법'에서 영감을 받아 계단식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정지 층과 계단 사이에 유리를 삽입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유적지는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토층을 벽면 전체에 전사하여 끊어졌던 풍납토성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람 이외에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용도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풍납동 유적 발굴 현장에 설치될 문화복합공간은 유적을 통해 인류와 문화, 역사, 자연과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매장문화재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그 중요성을 되찾길 바란다.

### 참고문헌

1. 김우웅, 서울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발굴유적 보존 방안, 2013
2. 김현, 개발과정에서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의 건축적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 2013
3. 신희권, 관축토성 축조기법의 이해, 2014
4. 이난경·양승우, 역사문화환경으로서 풍납토성 일대 변화과정의 도시형태학적 해석, 2018
5. 최민정, 매장문화재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6.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관축토성 축성기술의 비밀을 풀다, 2021